



중국리포트

KMI CHINA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国上海市 长宁区 遵义路 100号 南丰城 A-1803
 Tel. +86-21-6090-0395~6, Fax. +86-21-6090-0397

제20-18호
 2020년 10월 15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2018년 중국 해양혁신지수
- ▶ 전문가 칼럼: 산둥지역 해양경제 발전 정책과 한반도 해양협력 방향
- ▶ 동향 & 뉴스

■ 2018년 중국 11개 연해지역 해양혁신지수

순위	지역	종합지수
1	광둥(广东)	63.39
2	산둥(山东)	56.63
3	장쑤(江苏)	52.93
4	상해(上海)	49.99
5	톈진(天津)	41.48
6	하이난(海南)	37.21
7	랴오닝(辽宁)	36.12
8	푸젠(福建)	30.87
9	저장(浙江)	28.68
10	광시(广西)	26.60
11	허베이(河北)	24.13
평균		40.73

■ 2018년 중국 5대 경제구 해양혁신지수

경제구	종합지수
환보하이(环渤海)	39.60
창장삼각주(长江三角洲)	43.87
해협서안(海峡西岸)	30.87
주장삼각주(珠江三角洲)	63.39
환베이부완(环北部湾)	31.91
평균	41.93

자료: 「자연자원 과학기술 혁신지수 시평가 보고(2019-2020)」, KMI 작성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원을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KMI All Rights Reserved.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2018년 중국 해양혁신지수



자료: 「자연자원 과학기술 혁신지수 시평가 보고(2019-2020)」, 과학출판사, 2020. 08.

2018년 중국 해양혁신지수, 광둥성 63.39로 1위

중국 「자연자원 과학기술 혁신지수 시평가 보고(2019-2020)」에서는 해양 혁신지수에 따라 11개 연해지역을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광둥성은 제1등급에 속한 유일한 지역으로 해양혁신지수는 63.39를 기록했다. 광둥성의 2018년 해양 혁신지수는 연해지역 평균지수(40.73)의 1.56배로 연속 2년 1위를 차지했다.

제2등급에 속한 지역은 산둥성, 장쑤성, 상해시와 톈진시이며, 해양혁신지수 점수는 각각 56.65, 52.93, 49.99, 41.48을 기록했다. 이 4개 지역의 점수는 모두 11개 지역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등급에 속한 지역은 하이난, 랴오닝과 푸젠이 있는데, 해양혁신지수 점수는 각각 37.21, 36.12, 30.87을 기록했고 모두 평균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 광시, 허베이의 점수는 모두 20에 미치지 못해 제4등급에 속하게 되었다.

5대 경제구의 해양혁신지수를 보면, 해양혁신능력이 비교적 강한 지역은 주 장삼각주경제구(63.39), 창장삼각주경제구(43.87)와 환보하이경제구(39.60)가 있는데, 이 지역들은 모두 혁신센터를 가지고 있고 다핵 발전구도를 형성했다. 또한 3대 해양경제권 중에 북부 해양경제권의 해양혁신지수가 가장 높고 강한 원천 혁신능력을 보여주었다. 동부해양경제권은 남부해양경제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부해양경제권이 중국 해양인재의 중요 집적구역과 해양 경제산업의 중점발전지역이어서 강한 우위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8년 중국 해양혁신지수
- ▶ 전문가 칼럼 : 산동지역 해양경제 발전정책과 한반도 해양협력 방향
- ▶ 동향 & 뉴스

저자 소개

박문진 센터장
산동사회과학원 환황해 발전연구센터



전문가 칼럼 : 산동지역 해양경제 발전정책과 한반도 해양협력 방향)

산동지역은 해양자원과 해양산업 및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 독보적 우세를 갖고 있으며, 중국의 해양강국 비전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교류가 밀접한 산동지역의 해양경제 발전 정책은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협력 확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산동성 해양경제 개관

1) 우월한 해양 조건

산동지역은 중국에서 해양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의 하나이다. 해안선 길이가 3,345km, 해역면적은 약 15만 9,500km²에 달하며 589개의 도서(무인도서 557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7개 연해항만에 596선석(그중 만톤급 이상 326선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칭다오, 르자오, 엔타이항 4대 항만의 물동량은 각각 1억 톤을 초과하고 있다.²⁾ 국가급 해양목장도 44곳으로 중국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산동지역은 중국의 해양과학기술 메카로 불리 우는 데, 현재 성(省)급 이상 각종 해양기관(연구소, 대학 포함) 55개, 성급이상 해양과학기술 플랫폼 236개를 보유(그중 국가급 46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국가해양중점실험실, 심해기지센터, 자연자원부 제1해양연구소, 중국해양대학교 등이 있다. 또한 해양과학 기술인력도 중국 전체의 30%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과학원 원사 22명을 포함한 고급인력은 중국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중대 해양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중국 전체의 약 50%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

2) 해양경제 현황과 특징

2018년에 수립된 '해양강성 발전방안'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산동지역의 해양경제는 지속적인 고성장을 보였다. 2019년 산동지역의 해양 총생산 규모는 전년대비 9% 증가한 1조 7천억 위안(한화 약 290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중국 해양 총생산 규모의 19%, 지역 GDP의 23%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또한 수산, 해양바이오의약, 해양염업, 해양발전(發電), 해양교통운송 등 산업 규모도 중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위한 해양산업 클러스터 추진정책으로 현재 칭다오, 엔타이, 웨이하이, 위이팡 등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었다. 그중 칭다오지역은 해양교통운송과 해양바이오, 엔타이

1) 이 칼럼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KMI 중국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2) 2020년 1-8월 산동지역 항만물동량은 11억1100만톤, 컨테이너 처리량은 2050만TEU에 달하며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 3.5% 증가하는 실적을 거둬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2018년 중국 해양혁신지수
- ▶ 전문가 칼럼: 산동지역 해양경제 발전정책과 한반도 해양협력 방향
- ▶ 동향 & 뉴스

는 해양플랜트장비와 해양바이오의약, 웨이하이는 수산과 수산물가공, 위아팡지역은 해양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견인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다.

한편, 해양과학기술메카의 우위를 적극 활용하면서 해양과학 기술혁신 추진이 크게 확대되었다. 칭다오 해양과학기술 국가실험실 등을 포함한 46개 국가급 해양과학기술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고, 심해저 정거장, 투명해양(디지털 해양), 심해저 시추 등 국가 대형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원 원사, 천인학자(千人學者) 등 해양고급인력 유치에 주력하고 우한 선박중공, 동방해양 등 혁신형 해양기업의 유치 및 육성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산동성 해양경제 발전정책

1) 해양강성 발전방안³⁾

2018년 5월에 수립된 이 발전방안은 향후 5년 나아가 17년간 산동지역의 해양경제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은 해륙 통합관리, 세계 일류항만과 완벽한 해양산업체계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환경 조성 등을 바탕으로 국가 해양경제 시범구역 및 경쟁력 핵심구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구체적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2028년까지 해양 총생산 규모 3조 8천억 위안(한화 약 660조원)을 달성하여 지역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6%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2035년까지 기본적으로 국가 해양강국 전략에 부응하고 발달된 해양산업, 첨단 해양과학기술, 우수한 해양생태환경, 선진적인 해양문화, 효율적인 해양관리체제를 확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해양강성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과학기술 혁신, 해양생태환경 보호, 세계 일류항만 개발,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스마트 해양 프로젝트, 군민 융합, 해양문화 진흥, 해양 개방협력 확대, 해양 종합처리 능력 향상 등 10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전략별 3~6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책지원 분야에서는 동 방안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통합계획과 자원배치, 재정지원과 융자투자서비스, 과학기술 지원시스템 등 분야의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기능 강화, 시범사업과 핵심 프로젝트 추진, 감독 및 평가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2) 자유무역구 발전방안

3) 이 방안은 2018년 3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산동의 해양우세를 활용하여 해양개발 확대, 세계 일류항만과 완벽한 현대 해양산업체계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환경 등의 개발을 통해 해양강국 비전 달성을 위한 산동의 역할을 강화하라는 지시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립됨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8년 중국 해양혁신지수
- ▶ 전문가 칼럼 : 산동지역 해양경제 발전정책과 한반도 해양협력 방향
- ▶ 동향 & 뉴스

2019년 8월 국무원의 승인을 획득한 '산동자유무역구 발전방안'의 해양분야 내용을 보면, 주로 해양산업의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양특색산업 육성의 가속화이다. 동북아 수산물가공 및 교역센터 구축, 해양플랜트연구와 스마트터미널 등 개발추진, 해양생물종질과 유전자자원 연구 및 산업응용 강화, 시험구내에 여건을 갖춘 금융기관의 해양금융서비스 제공 장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국제해양협력의 확대이다. 동아시아해양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국내외 해양기관의 공동 실험실과 해양연구센터 설립을 장려하며, 국제해양기구의 지사 유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해운서비스 능력의 향상이다. 해운 빅데이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칭다오 국제해양재산권교역센터의 선박교역시험사업 추진, 외국적 크루즈 수리업무 허용, 복합운송 추진, 한일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동서대통로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한반도 해양협력 방향

1) 해양협력 정책기반

한국은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및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신북방'정책간 연계방안을 추진해왔다. 또한 2018년 이후 북한의 국가정책 중심이 경제개발로 옮겨지고 북중, 남북한, 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평화무드로 변화 추세를 보이면서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유리한 외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표 1] 남북중 해양관련 주요 협정과 합의서 등

구분	주요내용
한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협정 (1993) - 한중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설립 (1995) - 어업협정 (2000) -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2006~) - 해북복합운송협정 및 동북아 물류정보서비스네트워크 협력각서 (2010) - 해양협력규칙 (2016~2020) - 한중일 북극협력대화체제 (2016~) - 해양경계 획정협상 (2015~)
남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기본합의서 (1991) - 6.15 공동성명 (2000) - 남북해운합의서 (2004) - 10.4 공동선언 (2007) - 판문점선언 (2018) - 평양선언군사합의서 (2018) - 경제문화협력협정 (1953)
북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해어업협정 (1959) - 어업호조협력협정 (1972) - 상항해조약(商航海条约) (1962) - 해양과학기술협력의정서(1986) - 해운협정 (2002) - 해상식유공동개발협정 (2005) - 동해어로협력협정 (2010)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8년 중국 해양혁신지수
- ▶ 전문가 칼럼 : 산둥지역 해양경제 발전정책과 한반도 해양협력 방향
- ▶ 동향 & 뉴스

2) 해양협력방향

① 환황해 해양협력체제 구축

중국은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해양강국 가속화' 및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의 지속적 추진'이 강조되었고 2019년 4월 해군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해양운명공동체' 구축이 새롭게 제안되면서 해양강국 추진과 해양운명공동체 구축의 연계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환 황해지역은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국가 핵심이익과 직결되며, 남북중은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 경제적 보완성이 강하다. 따라서 황해를 기반으로 한 해양협력체제의 구축은 황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환황해 해양협력체제는 인류운명공동체의 지역 및 해양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이며, 신형 국제해양관계라고 할 수 있다. 세부 실천 과제로는 전략적 신뢰의 해양파트너관계, 상호 윈윈 발전의 해양경제관계, 조화 공생의 해양생태관계, 교류 교감의 해양문화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한국정부도 지역협력 비전을 담은 국정과제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동아시아해양협력포럼(황다오포럼), 환황해 해양발전포럼 등을 통해 남북중간 인식을 공유하고 세부 실천과제 협력을 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② 해운·항만·물류분야

2018년 한반도 정세 완화 및 북한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으로 한반도 중심의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북중 양국은 5회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 관계를 대폭 강화했으며, 특히 올해 중국 시진핑 주석은 6월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합리적 안보 및 발전에 관한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는 남북중을 연결하는 서해안 물류·경제회랑(산둥지역 항만과의 해상 운송 포함)등 개발을 적극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둥지역은 세계 일류항만 개발전략의 일환으로 성 정부 산하에 항만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항만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이미 빈저우항(滨州港), 동잉항(东营港), 웨이팡항(潍坊港)을 통합하고 산둥발해만항만그룹(山东渤海湾港口集团)을 설립한데 이어, 2019년 8월 산둥항만그룹을 설립하면서 계획과 관리서비스, 자원개발 분야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4) 이러한 산둥지역의 국제항운센터 개발을 위한 항만자원 통합 및 구조조정은 환황해권 항만물동량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연구 및 대응 마련도 필요하다.

한편, 항만 Sea & Rail 복합운송의 고성장 시기를 맞이한 가운데, 2019년 8월

4) 현재 산둥지역은 중서부지역에 37개 내륙항, 9개 중-유럽 화물열차 노선, 컨테이너 항로 280여개 노선, 우호 협력 항만 36개를 보유하여 북중국에서 1위를 차지함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8년 중국 해양혁신지수
- ▶ 전문가 칼럼 : 산둥지역 해양경제 발전정책과 한반도 해양협력 방향
- ▶ 동향 & 뉴스

'서부 육해 신통로 계획'이 발표되면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를 연결하는 복합운송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둥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신유라시아대륙교의 거점도시이자 상하이협력기구(SCO) 해양협력 중점도시로 지정된 칭다오는 현재 중앙아시아의 해상창구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칭다오항은 중국의 최대 Sea & Rail 복합운송 처리항만으로 2019년 전년대비 20% 증가한 138만TEU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광둥 스룽(石龙)-칭다오-한국 인천을 연결하는 '한·중 쾌속노선(中韩快线)', 다롄과 러시아 칼루가주를 연결하는 '삼성열차(三星班列)' 등의 운영은 한중 복합운송 협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③ 수산업분야

현재 중국이 '해양곡창(海上糧倉)'사업의 일환으로 해양목장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둥지역은 최대 수산물 생산지역으로 가장 많은 해양목장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산둥지역은 성급이상 해양목장 102곳을 보유, 그중 국가급 해양목장이 44곳으로 중국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황해냉수단 녹색양식(연어양식)과 수산업 공존형 해상풍력발전, 스마트 양식작업선 개발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련 장비 개발과 기술교류는 물론 정책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산둥지역은 해외 원양어업기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최근 해외 진출 사례로는 2018년에 승인한 중(산둥)-피지 어업종합 산업단지 프로젝트가 있으며, 2022년까지 30개 수산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환적터미널 개발, 어선 수리, 연료물자공급, 수산가공, 창고저장, 훈련 등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단지로 개발하여 대양주-동태평양지역 최대 규모의 종묘 육성기지, 원양어획기지, 수산물가공센터, 기술훈련센터, 수산물교역센터로 발전할 계획이다.

한국도 2023년까지 원양어업 생산량을 90만 톤으로 늘린다는 목표아래 신규 어장 개척, 원양합작사업 활성화, 선원·복지 개선 국제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해외 어업자원 조사, 친환경·복지형 어선 개발, 현지 합작사업 발굴, 해외 수산단지 개발 및 활용, 수산 저장·물류시설 활용, 선원 협력(교육훈련 포함) 등 분야의 국제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해양생태환경 보호분야

해양생태환경 보호는 중국 해양강국 비전의 주요 내용으로 산둥지역도 해양강성 발전방안에서 10대 전략과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주요 조치를 살펴보면 해양주체기능구 계획을 엄격히 이행하고 연안 1km 육역이내의 건물 신축을 금지하며, 오염 및 침식이 심각한 해역과 해도에 대한 복구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요 해역에 오염물 총량제를 도입하고 해양생태문명 종합시범구 개발을 가속화하며 실시간 해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8년 중국 해양혁신지수
- ▶ 전문가 칼럼 : 산동지역 해양경제 발전정책과 한반도 해양협력 방향
- ▶ 동향 & 뉴스

한 해양생태환경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관할해역 특징에 따라 차별적인 환경 보호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실제로 그동안 산동지역은 '남색해만(蓝色海湾)'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50여 억 위안(한화 약 8천5백억원)을 투입하여 200km에 달하는 해안선 정비와 2000여 헥타르에 달하는 해역에 대한 생태복구사업을 추진한바 있다.

지역협력 방안으로는 2017년에 개시된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 2기 프로젝트를 산동지역의 해양생태환경 보호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8년 6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해양쓰레기에 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되면서 이를 위한 세부 실천과제 협력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⑤ 해양과학기술분야

산동지역은 중국 해양과학기술의 중심지역이다. 해양강성 발전방안의 해양과학기술 혁신전략에서는 우수한 해양과학기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집중적으로 블루밸리와 해양과학기술 국가실험실의 선두적 기능을 강화하며 칭다오와 웨이하이의 해상종합테스트베드 등의 구축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즉 해양R&D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성과의 산업화를 통해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춘 해양과학기술 혁신센터로 발전함과 더불어 해양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2017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산이전 완료로 그동안 추진해온 동삼동 해양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단계적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적인 해양수산 R&D 허브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향후 해양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해양스타트업 육성, 해양관측장비 등의 표준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8년 중국 해양혁신지수
- ▶ 전문가 칼럼 : 산동지역 해양경제 발전정책과 한반도 해양협력 방향
-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해운 · 항만 · 물류

- 광저우항, 대외무역 정기선 항로 120개로 늘어나
- 광둥성 난사항, 중앙아~광저우~동남아 복합 운송 서비스 개시
- 국경절 및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여객수송량 6,211.5만명 기록
- 교통운수부와 수리부, 장강 주류 수로 준설사 종합 이용관리 강화 위한 지도의견 발표
- ZPMC, 칭저우항과 터미널 완전자동화 계약 체결
- Ningbo저우산항그룹, 발레 인터내셔널과 합자회사 설립
- 양산항, 첫 항만 간 국제선박 병커링사업 개시
- BIMCO, 홍콩을 네 번째 해사중재지로 지정
- 푸지엔성, 연안 컨테이너 익스프레스 운송 서비스 개통
- 잉커우항, 자체 최대 규모의 선석 개조공정 정식 착공
- Ningbo-저우산항, Sea & Rail 서비스 지역 15개 성, 56개 도시 포함
- 알리바바 디지털물류플랫폼 연간 4,000억 건 소포 처리 가능
- 산둥성, 중국 북방 항만 중 최다 해운노선 확보
- 중국, 호주 석탄 수입 돌연 금지

해양 · 수산

- 선전(深圳),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에 관한 실시방안」 발표
- 랴오닝성(辽宁省) 해양생태재해 조기경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중국 해양보호 업계 보고서(2020)」 발표
- 남해국(南海局) 「해양과학기술 혁신발전 계획(2021~2025)」 발표
- 상하이 충밍구(崇明区) 세계급 생태도시 건설 추진
- 자연자원부, 연안 종합 보호·이용계획의 편성 추진
- 광시(广西) 「해양경제 발전 촉진, 해양강구(海洋强区) 건설 추진의 3년 행동계획(2020~2021)」 발표
- ‘쉐룽(雪龙)2호’ 북극 과학조사 마쳐 중국 국내기지로 복귀
-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세계급 해양문화중심 구축 유망
- 선전(深圳), 해역 수면, 수역, 해상(海床), 저토에 따라 이용권 설립 시도